

특별기획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자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물류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군산시 성산면 철재조판대 한 나무에 강모(4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강씨의 옷에서는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의 한 물류회사 대표인 강씨는 세 아베스틸과 OCI 등의 기업과 물류계약을 맺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는 지난 2008년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경찰은 최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군산조선소 셧다운 위기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강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등산로 쓰러져 있는 요구조자 구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지난 15일 저녁 "아버지가 오후 4시에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당일에 부속환자이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평소 애 주주 다니는 배산 등산로 주변을 신속, 면밀히 수색하던 중 등산로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 구조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관 경위 김중규, 순경 김현남은 신고를 받고 신속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처로부터 배산 둘레길을 자주 다니고 기온에도 등산 중 저혈당으로 쓰러져 다른 등산객에 의해 업혀 내려왔다는 진술로 인상착의를 파악하여 수색 약 1시간 만에 저혈당으로 등산을 하다 배산 둘레길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119 구급차 출동요청, 응급처치 및 가족을 통한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익산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후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 농가주부모임 농협 익산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실시

익산시 농가주부모임(회장 고규연)과 농협 익산지부(지부장 송기무)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겨울철 관내 불우한 이웃을 위한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농협 익산지부 주처장에서 실시된 이번 나눔행사는 농가주부모임 익산지연합회 회원들과 농협 익산지부 직원들의 성금으로 4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겨 각 읍면 불우한 이웃 및 익산본내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농가주부모임 익산지연합회 고규연 회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조금이나마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농어촌공사 연탄 나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16일 익산 관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전북도 사회복지 협의회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9가구에 총 2,7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김진호 익산지사는 "올 겨울을 연니노의 영한으로 강추위와 대설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는 연탄배달 뿐만 아니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포근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등유, 전기매트, 난방텐트 등 예외지 나눔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이번 활동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한 진짚상 차려드리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지역 기관·단체들, 도민 동참 호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셧다운”

군산조선소 폐쇄 80여개 협력업체 줄도산으로 6500명의 근로자 실직 예상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 군산지역 각 기관단체들이 16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셧다운은 군산시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의 문제라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군산에 동지를 뜬 이래 매출 1조2000억 원, 고용 6500여명으로 군산수출의 20%, 전북수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과 군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조선경기침체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일제히 나타나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군산시민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 붕괴로 인해 8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6500명의 근로자 실직이 예상되고 있어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민과 각계각층의 참여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모아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셧다운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경제의 파탄은 곧 전북경제의 파탄이다”며 “더불어 사는 전북을 위해 군산조선소 셧다운을 위한 전북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과 전



북경제의 파탄으로 낙후전북의 오명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은 근시안적 조선소 폐쇄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전라북도내 각 시·군의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셧다운을 위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에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냈으며, 오는 19일 오후 3시 각 상임위원별 롯데마트 앞과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셧다운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은

근시안적 조선소 폐쇄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군산조선소 셧다운을 위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전북 14개 시·군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서명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외협력사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 이후로 나뉘는 도크폐쇄설이 최근에는 연말 폐쇄설까지 대두되는 등 관련 업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정확한 사실파악 및 도크폐쇄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된다. /군산=문정곤기자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교육부문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종근 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은 최고의 신뢰를 얻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조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가려내 시상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서울미디어그룹 주최, 이뉴스투데이 및 독서신문 주관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창수 새누리당 청년최고위원 김현태 한샘 상무, 손율식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상무, 한겨레 뉴보크 대표이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부문과 기업 부문 개인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조석남 학장은 지난해 9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으로 취임해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노고를 인정받아 대학 교육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익산남성고를 거쳐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조석남 학장은 1984년 서울신문사 기자로 출발해 스포츠조선 편집국장, 서울미디어그룹 상무 겸 독서신문 편집국장을 지내는 등 31년간 언론인으로 활약했으며 건국대외 경시대, 호남대 등에서 겸임 및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왕궁축산단지 주교제 생태습지복원 완공 앞뒤

새민금의 주된 수질오염원의 하나인 왕궁축산단지 내 주교제 습지복원 공사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교제 습지복원 공사는 그동안 주민들의 협의 거부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으나 작년 4월에 토지수용 결정완료로 지난 201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우회수로(L=1.2km)를 설치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주교제에 퇴적된 오폐수 제거를 시작하여 올해 5월에 폐기물처리를 완료(3만9천톤)했다. 현재는 주교

제 습지 복원마무리 공사에 힘쓰고 있다.

과거 주교제는 수십 년에 걸친 오폐수로 퇴적으로 인해 악취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왔으나 오폐수 처리 후 악취저감 및 왕궁특수지의 미관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마무리 공사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관목인 너트나무, 이팝나무 식재, 습지 내에는 수질정화 식물인 갈대, 줄, 물억새 등의 식재를 완료하면 휴식공간을 넘어 주민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연평도 도발 6주기 故문광욱 일병 추모 흉상 건립

군산시와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군산읍내 호수공원 내에 연평도 포격도발로 전사한 故문광욱 일병의 흉상을 건립하고 16일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유가족과 각 기관단체장, 군장대학교 학생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故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동신 군산시장은 “북한의 무차별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맞서 목숨바쳐 조국을 수호한 故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흉상을 건립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흉상을 보며 故문광욱 일병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흉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 해양·항만 30일까지 특별점검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과는 해양·항만분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병행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해양·항만건설 공사현장 전반에 걸친 허술한 안전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해소하여 해양·항만분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세부 점검대상은 해양·항만관련 건설공사비리(인·허가 침탈비리, 감리 및 대공관련 비리 등), 선박 안전관련 비리 다중 위락시설 안전사범 단속 등이다.

군산경찰 수사과는 이번 특별점검을 대비해 관내 해양관련 건설현황 파악 등 정보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유가족 분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22일 성과발표회 개최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올해 드림스타트와 함께한 아동과 가족, 후원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 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를 오는 22일 군산 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한다.

꿈이 있는 아이, 함께하는 부모, 군산시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홀소리 품물공원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드림스타트사업 경과 및 성과보고, 우수사례 영상, 프로그램 운영영상 상영으로 이어진다. /군산=문정곤기자

또한 ‘드림스타트로 오세요!’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선보이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힌 가락을 선보이는 우쿨렐레, 방송댄스, 난타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발표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은 물론 주변의 참여와 협조의 필요성을 일러는 축제”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영광여고 역사관 개관

학교자부심 향상 기대

근대민족교육 및 3.5 독립만민운동 등 후손들에게 잊혀가는 우리 민족역사를 알리고자 지난 15일 군산영광여고(교장 이현철)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소망관 2층에서 열린 개관식은 김양원 군산부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맨발단여학교 동문가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성만 부시장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김양원 부시장과 박정희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학교역사관이 교육의 장이 되어 군산영광여고등학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월 1920년대 사료들과 함께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약속한 맨발단여학교 채영희 동문의 자녀, 문일경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영광여고는 1920년 전진 선교사에 의해 구암동에 설립된 군산맨발단여학교의 정신을 이어받



아 1965년 현 위치에 개교해 낙후된 여성교육을 살리고자 설립됐다.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본관동 1층 약 330㎡(100 평) 공간에 조성된 역사관은 맨발단여학교 시절의 유물과 학교건물 3D재현 복원, 재전 초기 문서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1920년대 동문들의 자제들이 기증한 상감, 졸업장, 수화여행 사진과 1965년 법인 설립 당시 건축시방서 등은 물론 군산영광여고의 테니스부 연혁, 트로피 등과 신교합창단의 활동 내역도 함께 전

시됐다. 아울러 1만8,000여 명의 전체 졸업생 명단과 초창기부터 380여 명의 퇴임 교직원 기림관 등도 조성되어 있다.

안이실 군산영광여고 이사장은 “역사관 개관을 통해 졸업생은 물론 교직원, 재학생 등 모두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근대사의 흔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를 알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물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군산시와 서천군의 두 번째 철새 여행인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이 금강철새조판대, 금강습지생태공원 및 서천 조류생태전시관에서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금강철새여행을 위해 시는 지난 7월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고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등 관내 대학교와 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특히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답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개막식에는 군산 서해초 합창단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서천군의 화합을 그린 샌드아트, 창작무용 ‘새들의 꿈’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동물교과 생태설명회, 사육사 체험 등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 체험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구성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제8회 금강호 철새그림 그리기 대회’, ‘철새탐험가 되기’, ‘철새배행기 날리기’가 펼쳐진다. 셋째날에는 ‘철새밀렵꾼을 잡아라 미니헌장대회’와 ‘철새 먹이주기 행사’ 등 관객 참여형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철새골든벨, 세계음식 시식

코너, 전통영농체험, 영무새 먹이주기, 해설사와 함께하는 철새 탐조투어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밖에도 금강습지공원의 늦가을 단풍과 은빛 갈대숲은 보는 자체로도 힐링을 선사하며 조판대 본관에서 열리는 새민금 환경작품 전시회, 귀여운 아기오리들, 서울대공원 아기동물 사진전 등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강철새여행은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에 앞서 철새들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